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청년기 가족형성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형성의 변화는 혼인력과 출산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 증가라는 방향성도 함께 나타난다.
- 청년의 가족형성은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 가족형성의 변화는 매우 오래된 추세지만, 최근에는 더욱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청년의 독립, 혼인(동거), 출산,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가족형성과 관련된 생애과정은 일자리, 문화와 가치, 주거, 미래 전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청년의 가족형성은 이후 출산, 교육, 금융, 소비, 주택시장 등 다양한 사회영역과 미래의 사회변동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년의 가족형성은 사회 변화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핵심적 지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가족형성 자체가 우리 사회 청년의 현재 모습과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청년의 가족형성이 다른 사회 동향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많은 분석과 설명들은 대다수가 저출산 정

책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년의 생애 주기 이행이나 그를 둘러싼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청년의 가족 형성이 다루어진 적은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가족구성에 대한 접근은 청년의 삶에 대한 자세한 이해보다는 주로 출산력이나 혼인력의 약화로 단순화하고,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청년의 독립-혼인에 대한 태도-혼인이행 경향-자녀출산 등 일련의 생애과정 단계에 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시계열 및 성별 비교의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주 활용되었던 인구학적 지표들이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될 것이며, 여기에 활용된 자료들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혼인통계」, 「사회조사」 자료들이다.¹⁾

미혼인구의 증가와 청년의 독립

우리 사회 청년의 혼인력 저하의 경향은 혼인율 및 혼인건수의 감소와 혼인연령의 증가로 나

1) 청년의 연령은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세로 정의하지만, 이 글에서는 청년의 생활 변화를 보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청년기 전반에 걸쳐 누적된 결과들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연령 범위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혼인을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비혼화'의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며, 여기서는 청년 인구 중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인 미혼율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미혼율의 변화는 이전 시기부터 감소하고 있는 혼인력이 누적된 결과이며 해당 연도에 나타난 변화는 아니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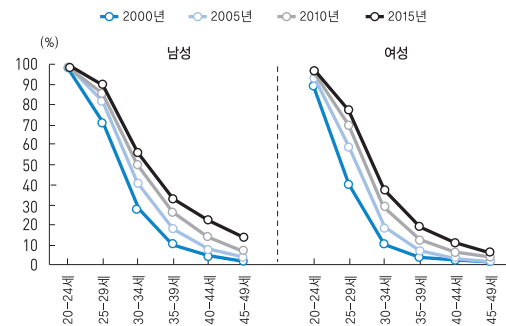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미혼율은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경향을 유지하면서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 변화의 양상은 성별과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인구학적 행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미혼율이 상승하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미혼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이 59.1%로 전체의 절반을 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대졸학력 여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산업구조 조정의 결과로 여성의 전문직 취업도 빠르게 늘어난 시기이다.

이후로도 미혼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30대 초반에서 점차 더 높은 연령대로 옮겨진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는 달리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도 40대 후반의 미혼율이 13.9%까지 증가하였다. 이 코호트 집단의 미혼율은 2000년 30대 초반에는 28.1%였는데, 이후 15년이 지나

는 동안 미혼율의 감소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그림 II-15).

[그림 II-15] 청년층 연령집단별 미혼인구 비율, 2000-201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실제로 연령별 미혼율을 출생 코호트로 나타낸 <표 II-3>을 살펴보면 30대 후반의 미혼율이 40대 후반 연령에 이르기까지 그리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향은 앞서 남녀 모두 코호트들에서도 확인된다. 추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30대 후반 이후 미혼인구에서 혼인이행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의 30대 후반의 미혼율을 가지고 앞으로의 중장년층 미혼 수준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30대 후반의 미혼율은 남녀 각각 33.0%, 19.2%였는데, 이는 앞으로 일생 동안 혼인을 하지 않고 지내는 비혼인구가 상당 수준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미혼 중장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출

산 현상의 강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장년의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중장년층의 증가는 소비·문화·주택·금융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가족을 대체하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3〉 청년층 코호트별 미혼율 추이, 1980-2015 (%)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남성						
56-60년생	93.1	50.7	13.9	6.6	4.9	4.5
61-65년생	94.4	57.3	19.4	10.6	8.5	7.5
66-70년생	96.4	64.4	28.1	18.4	14.4	13.9
71-75년생	96.3	71.0	41.3	26.7	22.5	
76-80년생	97.5	81.8	50.2	33.0		
여성						
56-60년생	66.1	18.4	5.3	3.3	2.6	2.4
61-65년생	72.1	22.1	6.7	4.3	3.6	3.3
66-70년생	80.5	29.6	10.7	7.6	6.2	6.4
71-75년생	83.3	40.1	19.0	12.6	11.3	
76-80년생	89.1	59.1	29.1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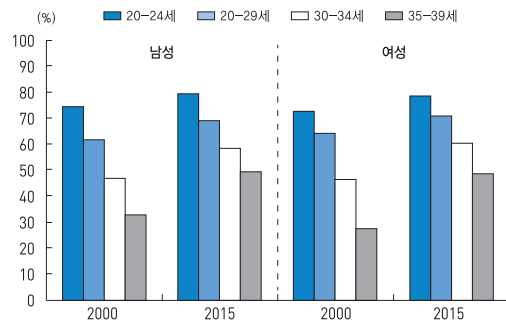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한편 2000년대 이후 나타나는 미혼 청년인구의 빠른 증가는 청년 1인가구의 증가를 의미할까? 미혼 청년인구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16]에서 보는 것처럼 미혼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츰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0년과 2015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에서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 폭이 높는데, 20대 초반부터 각 연령대별로 남성은 4.9%p, 7.3%p, 11.8%p, 16.7%p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6.1%p, 6.7%p, 13.8%p, 21.4%p의 증가 폭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30대 후반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약 5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II-16〉 미혼 청년의 연령집단별 부모와의 동거 비율, 2000, 2015



주: 1) 만 20-39세 전체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5년은 내국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00, 2015.

이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 등 청년의 생활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의 동거 비율 증가 폭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는 점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진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



로 여겨진다.

전체 청년인구에서 미혼인구의 비율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청년이 독립하지 못하는 경향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의 가족구성 변화를 많은 경우 개인주의의 강화로 설명하려 하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가치관의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결합하여 청년의 가족 의존성을 높이는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혼 청년인구의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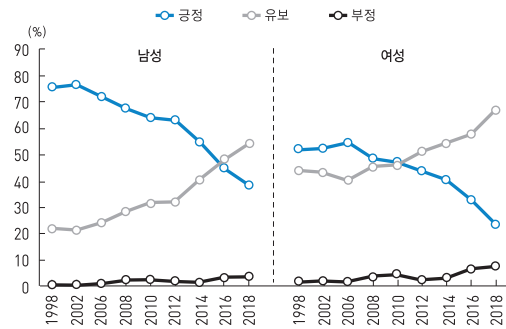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면서 청년들의 혼인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통계 자료들이 ‘혼인을 해야 한다’(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청년들이 기존 혼인 질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혼인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경향이 혼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향으로 흐르지는 않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1998년 남성과 여성 각각 75.5%와 52.1%에서 2018년 각각 38.4%와 23.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부정적 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의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지만, 이는 2018년 기준으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17).

[그림 II-17] 미혼 청년의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주: 1) 만 20-39세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긍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유보’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이며, ‘부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반면 유보적 태도(‘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비율은 2018년 남녀 모두에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54.4%, 여 66.8%). 이는 결혼을 의무로 여기는 전통적 가족(결혼) 가치관은 약화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혼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취업, 직업안정성, 주거, 안전, 교육, 가족 내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혼인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 차이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남녀 모두 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급격한 하강이 나타나는 시기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긍정적 응답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가 2006년과 2014년에 나타났지만, 여성은 2008년과 2016년에 이러한 급격한 감소가 발견된다. 이것은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의 원인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혼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경제적 원인을, 여성은 가치관의 변화를 꼽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영 외, 2018).

한편 혼인태도가 크게 변하는 시점(이전)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예를 들어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주택가격 폭등,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등)로 급격한 변화들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인구학적 변화들의 양상을 개별 사건들에서 찾고자 하는 것에는 매우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혼인행태의 다양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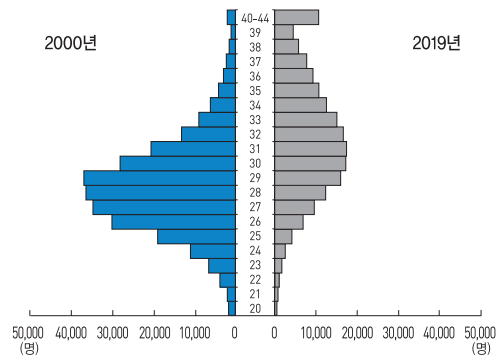
청년의 가족구성에서 전통적 태도의 약화가 혼인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혼인연령의 증

가를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혼인연령의 변화는 평균 초혼연령뿐만 아니라 혼인연령 구성의 차이도 함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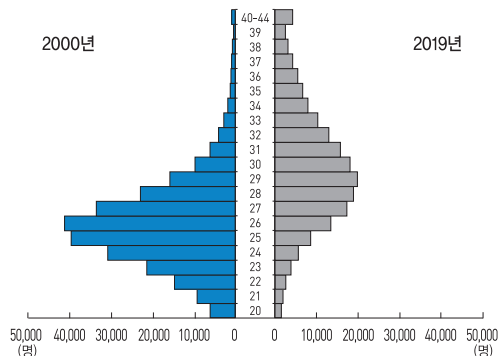
[그림 II-18]에서 2000년과 2019년의 20-44세 남녀 초혼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 혼인연령의 증가와 함께 분포의 첨두(뾰족한 형태)도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최빈값)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해당 연령을 중심으로 연령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분포가 매우 넓어지

[그림 II-18] 청년층 성별 초혼연령의 분포, 2000, 2019

1) 남성



2) 여성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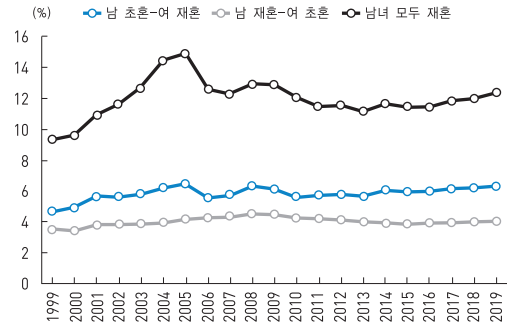
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혼인연령의 최빈값을 기준으로 그보다 어린 연령에서의 혼인건수가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최빈값 이후의 분포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특정 연령까지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혼인의 연령규범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치규범의 약화는 단순히 혼인력의 감소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로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혼인연령의 첨도가 더 높다는 점은 혼인규범의 약화가 남녀에게서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혼인행태의 다양성 증가는 다른 지표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구성을 보면 전체 결혼에서 재혼여성과 초혼남성로 이뤄진 비율(6.3%)은 재혼남성과 초혼여성의 혼인(4.1%)보다도 높았다. 사실 우리나라 남성초혼-여성재혼이 그 반대 경우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며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꽤 오래된 현상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혼인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결혼의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2010년경부터는 남성재혼-여성초혼의 비율은 정체된 반면, 남성초혼-여성재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II-19).

한편 이혼의 증가와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가족관이 약화되면서 남녀 모두 재혼으로 구성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초혼 부부 혼인이 아닌 재혼 결합의 경우가 전체 혼인에서

[그림 II-19] 혼인종류 구성의 변화, 199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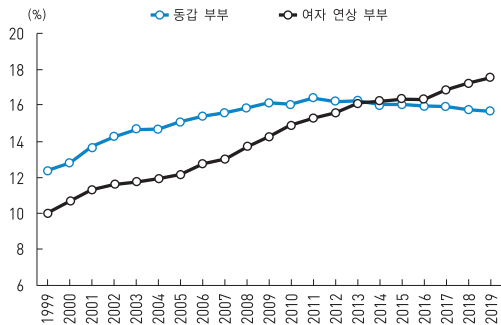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7.6%에서 2019년에는 22.7%로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추세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재혼결합 가족의 문제도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혼결합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양육 갈등이나 사회적 차별, 심지어는 아동학대 등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혼인행태의 다양성의 다른 예로는 부부 연령 구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도 남성 연상 부부 비율이 가장 높지만(2019년 66.8%), 이는 20년 전의 77.6%(1999년)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게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림 II-20]에서처럼 여성 연상 부부가 1999년 10.1%에서 2019년 17.5%로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강화, 성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의 약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경제력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20] 초혼부부 연령구성의 변화, 1999-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혼인의 연령구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동갑 및 여성 연상 부부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초혼연령의 남녀 차이는 근 30년 동안 2.7-3.2세의 범위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남녀 차이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인다(그림 II-21).

이처럼 초혼연령에서 모순적 양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부간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국제결혼의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표 II-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인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성별 초혼연령을 비교해보면, 남녀 간 차이가 상당히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이 매우 어린 동남아 출신 여성들과의 혼인 비율이 높았던 2010년대 초반에는 내국인 혼인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낮아진다. 이처럼 전체 혼인 관련 지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된 국제결혼은 최근 혼인의 다양성 확장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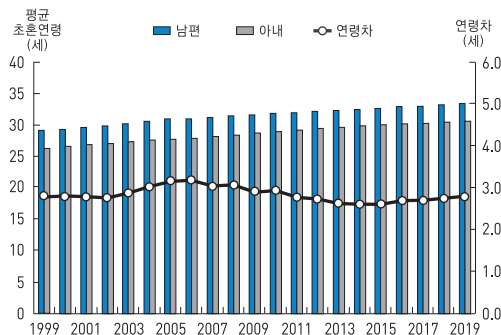
〈표 II-4〉 전체 및 내국인 인구의 평균 초혼연령 비교, 2011-2019

	전체			내국인		
	남	녀	차이 (남-녀)	남	녀	차이 (남-녀)
2011	31.9	29.1	2.76	31.9	29.4	2.49
2013	32.2	29.6	2.62	32.2	29.8	2.43
2015	32.6	30.0	2.61	32.6	30.1	2.47
2017	32.9	30.2	2.70	32.9	30.4	2.53
2019	33.4	30.6	2.78	33.4	30.8	2.57

주: 1) 내국인 초혼연령은 출생한국인의 초혼연령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통계」,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1] 평균 초혼연령 차이, 1999-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혼인의 이행과 부부 출산력

청년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생애과정 이행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혼인력과 출산력의 구성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미혼에서 혼인으로 이행하는 확률(혼인이행확률) 역시 앞서 혼인연령분포처럼 정점의 값이 낮아졌다. 침도 역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여성에서 확연한 완화 양상이 발견된다(그림 II-22).



앞서 혼인건수의 연령분포에서 혼인연령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연령대에서 혼인이행 확률 역시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성 30대 초반에서만 그러한 변화가 발견되었고, 남성에서는 20대 이행확률이 낮아진 것을 30대에서 그리 크게 만회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녀 모두 30대 후반부터는 2015년의 혼인이행확률이

2000년에 비해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연령구별이 악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늦은 연령의 혼인확률을 높인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30세 이후 혼인건수가 매우 크게 늘었음에도 실제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이행확률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어린 연령에서 혼인을 미루면서 30세 이후의 미혼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아져도 혼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느끼는 것은 이들 연령에서 혼인(건수)이 늘어나면서 느껴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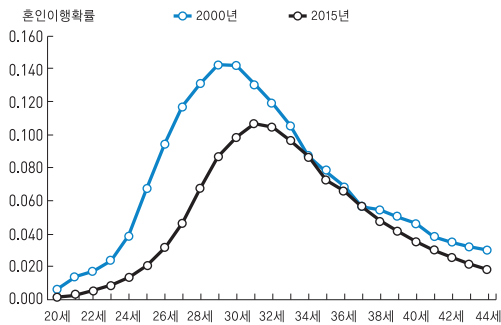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청년의 가족구성 변화는 사회의 출산력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구성 환경이 악화되면서 출산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최근 나타나는 출산 관련 중요한 변화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출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미혼여성을 의미하였다.

[그림 II-23]에서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기혼여성 중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안정적 양상을 보였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비율은 이전 기간의 혼인 규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초저출산 국면에 들어선 2010년까지도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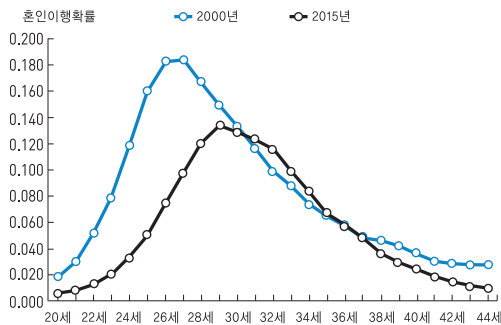
그러나 2015년 자료를 보면 무자녀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무자녀 부부의 증가가

[그림 II-22] 청년층 연령집단별 혼인이행확률, 2000, 2015

1) 남성



2) 여성



주: 1) 혼인이행확률=연령별 혼인건수÷연령별 미혼자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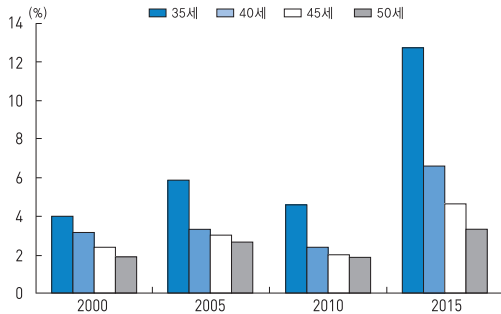
2) 미혼자 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각 세별 미혼인구로 조사 시행 연도의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3) 혼인 건수 산정 기간은 「인구주택총조사」 연도의 11월부터 다음 해의 10월까지임.

4) n세의 혼인건수 = {n세의 혼인건수+(n+1)세의 혼인건수}÷2.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00, 2015; 「인구동태통계」, 2000, 2001, 2015, 2016.

[그림 II-23]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율 추이, 2000-2015



주: 1) 기혼여성은 혼인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유배우, 이혼, 사별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0년 이후로 일어난 매우 최근의 현상임을 보여준다. 35세 기혼여성에서는 여성의 혼인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이 무자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이 된다. 혼인이행확률이 매우 낮은 35세 이후 기혼여성에게서도 무자녀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 혼인한 부부 중 상당 비율이 출산기피가 누적된 결과이다. 2010년 이전의 저출산 현상과 그 이후의 저출산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맺음말

우리나라 청년의 가구구성은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자

세히 들여다보면 변화의 원인은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주택 등 청년의 생활 여건, 가족 지원, 젠더인식,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성 역시 단순히 혼인력이나 출산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이 확장되어간다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합하는 상호교차(intersectionality) 양상의 확대를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양상에서 청년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치나 이론에 편향되거나 독점되지 않고 가치, 문화, 젠더, 계층, 세대, 지역 등의 복잡한 교차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인식의 프레임도 개발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청년의 삶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럽의 가족정책(Karmer, 2014)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 관점으로서의 정책기조 확장도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armer, Steven P. 2014. The Other Population Crisi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